영적인 젖먹는 유치함, 밥 먹는 성숙함

(고린도전서 3:1~4)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젖먹는 유치함, 밥 먹는 성숙함>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적인 젖먹는 유치함, 밥 먹는 성숙함"
본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과 분파와 연관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치함 가운데 있는지 혹은 영적으로 성숙함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따르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유치함의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으로 유치함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해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거나 구원받았다고 믿거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어야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믿지 않는 것

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칭하면서 자신들이 정당하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언급된 "사람"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의 척도는 육신에 속함입니다. 육신에 속했느냐 혹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함으로써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혹은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밥도 너끈히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성숙하지 못하다면 젖을 먹어야 할 것이고, 조금 성숙했다면 이유식이나 죽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단어의 어감의 차이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통적 특성에 집중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본 2장 14~15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가 대비됩니다. 본문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에 속함은 헬라어 단어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자면 육체 의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느끼는 의식 작용이 있고 무엇을 좋다고 믿어서 끌어들이는 욕구의 작용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의식 작용과 욕구의 작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빨아들여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좋다고 믿는 것만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은 이렇게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빨아들이는 욕구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의 경우에 있음을 느끼고 좋음

을 욕구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육체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은 이제 있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확신하는 대상으로 채워지고자 욕구합니다. 그때 육체가 개입합니다. 이제 마음은 육체에 달라붙어서 눈과 귀와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있음을 의식하는 작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각을 통해 있음을 느낀 대상들 중에서 바라고 채우기 위해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이 전적으로 육체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만나는 것들 중에서 있다고 느끼고 육체가 만나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믿어서 욕구합니다.
한편 신령한 사람의 특성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에서는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욕구할 대상을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동안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마음이 몸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좋다고 욕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리듯이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기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으로 번역된 헬라어 브로마(βρωμα)는 사실 고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가 없는 아기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씹어야 하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먹인 젖과 밥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젖은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 같은 기본적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밥은 성령의 열매나 종말론 같은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념들이라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한 완전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

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나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오한 사상을 연구하는 철학자에게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심오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의 등급을 매겨가며 가르침에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젖을 먹을 정도의 영적, 지적 소화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면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만을 전하고, 밥을 먹을 정도의 영적, 지적 소화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면 성령의 열매나 종말론 같은 심오한 내용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종말론 등을 전해도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의 관련성 안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 2절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하나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젖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젖과 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젖이고 심오한 내용이 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를 전할 뿐인데 듣는 사람의 현재 영적인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젖이 될 수 있고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밥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젖에 해당되는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영적인 유치함이 무엇이며, 밥에 해당되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말씀드린 "영적인 젖먹는 유치함, 밥 먹는 성숙함"의 문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육신에 속한 영적인 유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십자가 하나를 전했습니다. 유식한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에게서 영적인 성숙함과 유치함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사고력이나 이해력 혹은 지식의 수용능력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문화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한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논쟁하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제일 유식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유식하다는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유치한 젖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교수나 총장 정도면 대단히 성숙한 정신세계를 가졌다고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무식쟁이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이로부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상태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마음이 육체에 붙은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의 욕구의 작용이 육체에 의존되어 있다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붙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 된 상태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신비한 것들이 배달됩니다. 그 신비한 것들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결국 십자가 하나를 삶에서 얼마나 써먹느냐에 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을 자신의 몸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마음의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을 따라감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욕구하는 작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피아니스트의 97%가 원하는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인웨이(Steinway) 피아노입니다. 저희 집에도 전자피아노가 있는데 거의 장식품입니다. 오고 가면서 피아노 건반을 덮어둔 천의 먼지를 털어

줄 뿐이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피아노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엘 정도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기껏 체르니 100 정도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 동네 음악학원에서 연습한 정도를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대학입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음대의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콩쿠르에 입상할 정도라면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중에는 쇼팽이나 백건우 같은 거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도 전혀 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팽이나 백건우 같은 거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 바이엘을 뗐습니까? 체르니 100을 뗐습니까? 혹은 동네 피아노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엘리제를 위하여'를 쳐낼 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대학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정도입니까? 혹은 음대의 피아노과를 졸업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쇼팽이나 백건우 같은 거장의 수준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생활화는 결국 마음이 육체 의존성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은 육체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삶의 환경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육체 의존성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로부터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엽편주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노도광풍을 만났던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파도와 바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도광풍이 배를 뒤집으려 성을 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육체로 만나는 환경에 대해 독립적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육체로 만나는 환경에 대해 종속되어 있고 의존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마음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보이고 들리는 육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로부터 마음은 자

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결정짓는 척도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노도광풍을 만났을 때에 일엽편주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도하게 되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자 삶에는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공회의 재판을 받으실 때 무서워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산헤드린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이전의 베드로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지만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산헤드린공회의 있음이 너무 큰 존재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으니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을 제일 좋은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되었고 영적 세계인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듯이 베드로의 마음이 영적 세계에 닻을 깊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천국에 닻을 내린 상태가 되자 똑같은 산헤드린공회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영적 세계인 천국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마음은 독립적일 수 있었고,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평강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몸으로 만나는 상황이 세상에서 좋다고 해도 마음이 좋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마음이 나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

파로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은 있음을 느끼는 마음의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이러한 자연인의 상태와 똑같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독립적이라면 바울파나 아볼로파와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피아노라면 우리는 쇼팽이나 백건우 같은 거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놓고 도대체 써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덮어둔 채 모셔만 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써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대상과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지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영성이 제로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전 세계 개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말씀 잘하는 신부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동네에 정해진 성당이 있으면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미친 듯이 스타 목사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연상시킵니다. 전도할 때도 “아무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라!”라고 목사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전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을 전하는 이유는 목사님을 따르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좋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전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목사님을 소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진 공급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설교를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설교는 십자가 사건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설교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가 영성 제로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연인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한 사람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육체의 의존성을 피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고, 들은 사람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이 영적 세계인 천국으로 가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교제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연을 맺어주심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각자가 받은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달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생활화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더라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대신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의 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이 아직도 육체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이 육체의 의존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라고 하면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도광풍을 만난 일엽편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깊은 잠을 자라고 해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사도 베드로처럼 내일 참수를 당할 상황에서 전날 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라고 해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에 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의 번제' 방송을 하고 온라인교회 모임을 나누며 하는 이야기는 모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라는 이야기입

니다. 우리는 영적인 젖먹이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같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지금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이상해도 마음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방송으로 나누며 온라인교회 모임으로 나누며 함께 성숙을 향하여 박차를 가하며 나가다 보면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함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일깨워 주신 영적 성숙함의 고지를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